

제목: "축복을 향하여 떠나라"

말씀: 창세기 12장 1-9절

하나님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인간을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벌써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브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계획을 온 인류에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순종의 인생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 아브람의 부르심이 또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알려 주십니까?

1. 지금 그 자리에서 _____고 하십니다.
2. 갈 _____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3. 큰 _____이 시작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지난 주 헌금 (7월 24일 헌금)	
십일조	
주일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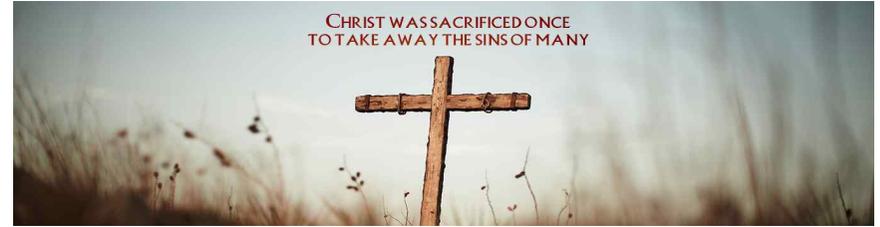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2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Hebrews 12: 1-2)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인도: 김성민 목사

12: 30 PM

Presider: Rev. Jason Kim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성경말씀 창세기 12장 1-9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Genesis 12: 13-15 구약 13 페이지 Presider

말씀 "축복을 향하여 떠나라" 김성민 목사
 Message Rev. Kim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찬양/헌신기도 보라 너는 두려워 말고 다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축도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당: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코로나 바이러스)

결국은 나도 걸렸다. 2년을 넘게 걱정과 근심 가운데 피해 다녔던 병균에 감염이 된 것이다.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만 인후염이 시작되었다. 그 고통은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픔이었다. 마켓에 있는 인후염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약은 전부 다 구입해 왔다. 소금으로 지저 보기도 하고 얼음으로 달래 보기도 했다. 그런데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약(Paxlovid)을 처방 받아 먹었다. 5일간 먹는 약인데 목이 갈라지는 것 같은 아픔에 약으로 인한 쓴 냄새가 몸 안에서 나왔다. 그 약을 먹는 자체도 고통이었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목의 고통 때문이고 몸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며칠을 지나니 잠을 못 이룬 탓에 제정신이 아니었다.

결국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답이었다. 다행히 입맛은 사라지지 않아서 이것저것을 먹었다. 그러면서 생각난 것이 있었다. 친구 목사의 죽음이었다. 처음 코로나가 시작 되었을 때에 세상을 떠난 장 목사님이다. 이 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그 보다 약한 변이에 걸렸고 약이 있으며 주위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으니 다행이요 감사한 제목이 아닌가? 그러나 죽은 사람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니 조금 더 참아보자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몸이 아프니 일도 할 수 없었고 교회도 나올 수 없었다. 온라인 예배도 준비 할 수 없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도 며칠이 지나가니 조금씩 나아졌다. 그런데 코로나는 음성이지만 상처가 난 목은 쉽게 낫지 않았다. 하지만 희망이 보였다. 열심히 얼음을 옆에 두고 자세가 좋지 않았지만 누워서 기도를 시작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 살아가게 하소서.” 그 뜻은 나를 다시 한 번 살려주셔서 나머지 날들을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해 달라는 뜻이었다.

한 번 그렇게 아프고 나니 정신이 난다. 죽음의 위험을 얼마나 많이 넘나들면서 살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다시 살아나고 살아나는 것을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 아팠던 일을 통하여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답을 분명하게 받았다.

사도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로마서 14장 8절)라고 늘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며 고백했던 고백을 나누었다. 그러니 나도 사나죽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회복이 되었다. 이제 90일은 면역이 확실하다고들 말한다. 가을에 새로운 백신이 나오면 맞으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백신이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기대가 된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사는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영화 한 편인 것이다.

“코로나에 걸리면 며칠 고생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보다 훨씬 고통이 있었다. 쉽게 경험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말이다. 장담하지도 말고 인생을 약속하지도 말자. 그저 숨 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전부를 사용 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의 그 안에 큰 기쁨과 힘을 주신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여행 중에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개척교회에 새로이 세례 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인선 선교사: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9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 씩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 정기당회

8월 27일(토) 이석순 장로님 맥 Turkey Place 오전 8시

6. 니카라과 선교지 건축 계획

니카라과 (김인선 선교사님)에 있는 기독교(라마나웃 크리스천 Academy) 건축을 위하여 교회에서 특별헌금 \$12,000.00 을 보내드립니다. 아름답게 마무리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